

| 신년 축하메세지



김성규 이사장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도전과 변화의 물결이 유난히 거세던 병술년(丙戌年)을 보내고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우리협회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고 특히, 금년 1월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어 우리협회가 선박검사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선박관련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정부대행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2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용하여 오던 “협회”라는 명칭을 벗어버리고 우리조직의 기능에 맞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대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협회는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연차별 고객만족(CS) 개선계획 수립을 통하여 각종 고객만족추진조직 운영·서비스콜 제도시행·선박검사실명제 확대실시·고객과의 간담회개최 등 다양한 대고객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객과의 대화채널을 확대해 왔으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무료특강실시와 어촌계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그 동안 일구어낸 성과와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개칭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전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와 선박관련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최고의 전문기술단체로 발돋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협회 임직원들은 이러한 다짐과 함께 해양수산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 1. 1

이사장 김성규